

##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출제문제 해설 포함)◆

### [인문 문제1번]

#### 1. 문제의 성격

바바라 크루거의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에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작품의 메시지가 쇼핑에 대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다. 다만 선택한 입장에서 그림의 메시지를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평해야 한다. 제시문의 내용과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치밀하게 종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2. [보기] 및 제시문 해설

##### ■ [보기]

제시된 그림은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가졌던 예술가 바바라 크루거의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1987)이다. 과도한 소비주의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크루거의 대표작이다. 그림의 전면부를 차지하는 문구 “I shop; therefore I am.”은 이성 혹은 사고를 존재의 기반으로 보았던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에 대한 패러디이다. 소비와 상품구매능력을 존재의 기반,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로 삼는 현대인의 왜곡된 가치관을 꼬집고 있다.

##### ■ 제시문 [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의 결론을 담고 있는 글이다. 데카르트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만이 존재의 궁극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 제시문 [나]

쇼핑의 공간이자 쇼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쇼윈도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쇼윈도는 쇼핑하는 사람과 쇼핑의 대상인 상품 사이의 관계의 장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가치교환을 활성화하고 모종의 가치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의 ‘획일화’와 집단성을 강화한다.

##### ■ 제시문 [다]

무소유를 지향하는 필자의 소망과 좌절이 담담하게 서술된 글. 물질의 소유가 마음을 소유 혹은 소유의 대상인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어 고결한 가치 추구를 방해하는 것을 개탄하며, ‘빔’의 실천이 물질주의로 가득 찬 ‘컵데기’ 인생이 되는 것을 막는 길임을 일깨운다.

#### 3. 답안 작성의 길잡이

[보기]의 그림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창작 의도에 관한 통상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쇼핑을 옹호하는 쪽으로 논지를 잡아도 상관없다.

■ 그림의 메시지를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경우

제시문 [가] 혹은 [나]를 주장의 논거로 삼는다. [가]를 논지의 바탕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이 쇼핑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뒤따라야 하며, 그것이 [가]에서 주장하는 존재의 기반으로서의 '생각하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회 전체의 획일화 및 집단성 강화로 인한 개인의 독자성 훼손을 시사하는 [나]의 분석과, 비움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존재의 진정한 기반인 '생각하는 나의 발견 및 이에 근거한 인생에 대한 참된 인식과 설계를 가능케 한다는 [다]의 통찰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를 적극 활용, 완물상지의 오류를 극복하고 비움을 내면화하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해 존재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음을 부각시켜 소비주의 문화를 비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역시 제시문 [가]와 [나]를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의 메시지를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예찬으로 읽는 경우

제시문 [가]와 [다]를 비판하고 제시문 [나]에서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의 근거를 도출한다. 이 경우 인간이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에서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 가치의 위계코드, 기호체계의 교환과 같은 공유 매체로서의 상품의 특성과 그것의 진열 공간인 쇼윈도의 역할을 적시함으로써 소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질과 '생각하는 나'를 구분짓는 [가]의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하고 [다]가 간과하고 있는 소비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쇼핑'을 '소비문화' 대신 '물건을 사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여 긍정하는 입장이라면, [가], [나], [다] 전부를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평가 포인트

- (1) [보기]에서 제시된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주체적인 태도로 해석했는가의 여부.
- (2)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는가의 여부.
- (3) 그림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논평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적절하게 선별적으로 수용 혹은 비판했는지 여부.

#### 5. 자료 출처

[보기]

Barbara Kruger,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출처: 『고등학교 미술창작』, 경기도교육청, 13쪽.

제시문 [가]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성찰: 데카르트 연구』를 일부 수정.

제시문 [나]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를 출제자 번역.

제시문 [다]

[신영복, 「나막신에 우산 한 자루」, 『신영복—청소년이 읽는 우리 수필 01』 66-7쪽.

## [인문 문제2번]

### 1. 문제의 성격

[보기]에 제시된 친양자제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친양자제도가 시행된 사회적 배경 및 제도 시행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까닭을 추론·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가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친양자제도 시행에 어떤 난제가 개입되어 있는지 요령있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2. [보기] 및 제시문 해설

#### ■ [보기]

친양자제도는 민법상 양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양자와 양자의 친생부모의 관계가 기존의 제도로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친양자 성립 후 파양이 된 경우 양부모의 이혼, 부적응, 또는 사정 변경 등 친양자제도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들이 대거 등장했다. 통계 자료가 포함된 밑줄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 ■ 제시문 [가]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친족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재조합적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가족이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되고 거래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주장이다.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 제시문 [나]

가족 간의 수직적 요소, 즉 혈연과 생물학적인 관계에 근거한 기본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관을 반영한다. 부모와 자식간의 연속성이나 시간상의 연속성 등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파악하고 제시문 [가]의 주장과 대비시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 ■ 제시문 [다]

장발장과 코제트는 혈연관계가 없다. '장발장의 본능이 한 아이를 찾고 있었듯이, 코제트의 본능은 한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시사하듯 둘의 관계는 일종의 재조합적 가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수평적인 재조합적 가족 속에 작동하는 가족성원 간의 연결고리의 성격을 설명하는 예로 쓸모가 있다.

### 3. 평가 포인트

- (1) [보기]의 친양자제도의 도입취지, 시행에 대한 이해.
- (2) 제시문 [가], [나], [다]에 제시된 '가족' 개념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여부.
- (3) 제시문 [가], [나], [다]의 '가족' 개념을 모두 적절히 활용하여 [보기]의 친양자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를 초래한 이유를 설득력있게 추론·분석하고 있는지 여부.

#### 4. 자료 출처

[보기]

박복순/ 현소혜, "친양자 및 자녀의 성 본 변경제도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가족법연구 28권 1호, 한국가족법협회, pp.164-179

제시문 [가]

앤소니 기든스. 1996.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169쪽.

제시문 [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서문, 2002. <가족의 역사>(앙드레 뷔르기에르, 정철웅)

제시문 [다]

빅토르 위고 지음, <레 미제라블>, 이찬규, 박아르마 편역, 구름서재, 2014, pp,129-130.

ibhak.ssu.ac.kr